

헌금, 어떻게 써야 할까요?

김도묵 장로(사랑 2구역)



몇해 전에 들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자선기관들이 특정 이슈를 내 걸고 모금한 금액 중에 평균 30 퍼센트 만 원래의 목적했던 곳에 쓰여지고 70 퍼센트는 기관의 인건비, 통신비 등 운영비로 쓰여진다고 하며, 교회가 밖으로 남을 돕는 일에 내 보내는 액수는 이 보다도 더 적은 비율이라고 하여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로 헌금의 반 이상을 교회 밖에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써 오고 있는데, 이 비율은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아져야 옳은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금은 제대로 바치는 것 못지 않게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은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쓰여 질 때에 진정 봉헌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와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바쳐진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이 일로 형제는 같은 날 전장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또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대형교회는 재벌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들이 계속 적자를 보자 계속 교회 돈으로 메운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현역으로 입대해 강원도의 전방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이었는데 그 교회가 연례 행사로 성탄절 위문품을 그 해에는 그 아들 부대에 보내자고 했지만, 담임목사께서 종래 동의하지 않아 다른 부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중견 교회의 장로 한분은 그 아들이 서울 외곽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고군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교회를 선교 예산으로 도와야 한다는 동료 장로들의 뜻을 아버지 장로께서 전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의 두 분은 헌금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도 짜고 토론도 많이 합니다. 논의의 초점은 항상 '주느냐, 마느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곳을 넉넉하게 도와야 하겠지만 가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덜 절박한 곳에 쓰고 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회원이나 부서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국내외의 선교비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관한 것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깝다고, 부탁한 이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주 만나야 하는 교우라 해서 더 후한 점수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개인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할 일에 교회의 돈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처남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해서 "자형, 피아노 한 대만 맡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고 교회의 국내 선교부에 부탁해서 해결했다면, 과연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졌지만 깨끗하게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시는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얼마를 헌금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한 해에 예산을 세워서 쓰는 50여억원은 이런 분들보다 못하거나 나은 분들의 눈물어린 정성이 모아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하게 되면 서둘러서, 편법을 써서라도 전액 인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예산이 깎일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조직과 예산 규모가 커지면 행정이 경직되고 관료화 됩니다. 우리는 부지 불식간에 헌금과 관련하여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나라에서 '선한 청지기 상' 을 타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다.

(→ 1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교회는 이제 틈 에이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건강에 필수적인 '여덟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부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다녀와서

김경덕 집사(충성 1구역)



가장 많은 환자들이 몰려 온 둘째 날 오후 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휴게실에 들어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네?” “있잖아요, 여기 온 어린이들 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모두 천사 눈 같아요.” 집사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하면서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왔네요.” “왜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천사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기도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돌아서면서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와 선교라는 커다란 명분에 뿌듯해하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니 천사 같은 그들의 눈빛에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 보였고 그런 그들의 눈에 세상에 찌들고 병든 우리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의료선교부와 해외선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해외선교위원장님으로부터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의료인도 선교인도 아닌 내가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경 캄보디아에 먼저 다녀오신 서안 복음병원 원장님을 초청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부터 호기심과 웬지 모를 관심과 기대가 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고, 하루 이를 조금씩 준비에 참여하던 것이 그만 참여는 물론 선교의 행정적인 일을 책임지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저였지만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오히려 약한 모습의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저의 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 팀 내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총 62개의 대형 가방과 의료 장비가 새벽 6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중 어떤 약품과 장비가 현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8시 열대성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서 반갑게 맞이하는 이성민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방콕 공항에서의 짧은 휴식 때문인지 아니면 모두 안전하게 도착

한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 대원들 모두가 피로한 기색 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날

숙소에서 1시간 거리의 진료 현장은 가난에 찌든 주민들의 모습만 제외한다면 인온한 느낌이 드는 우리의 고향 같은 농촌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번 의료봉사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웅덩이에 핀 수련 꽃처럼 아름다운 나눔의 빛을 듬뿍 발할 수 있기를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축(Chhuk) 훈련 센터, 7시 반인데 벌써 미리 도착한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의대생이 주축이 된 현지도우미들과 상견례를 가진 후 각자의 자리를 잡고 진료를 개시하기까지는 불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설된 진료 과목은 치과·내과·일반외과·성형외과 그리고 약국, 열대의 태양이 채 뜨거워지기도 전에 전 진료실은 환자들의 찌든 땀 냄새와 함께 한국어·영어·캄보디아어가 뒤섞여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접수-진료과 배정-진료-처방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는 사전에 연습을 한 것처럼 금세 익숙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상치 않게 서울에서 가져 간 치과장비 중 한 세트가 작동이 되지 않아 너무 안타까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기라 느껴졌던 순간도, 뿌듯했던 순간도 결국은 모두 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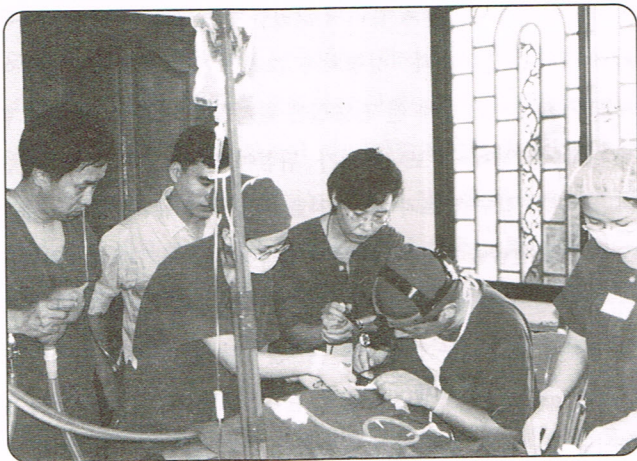
오후가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지만 경험 있는 현지도우미들의 지원 덕분에 진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즈음, 마당 한쪽에서는 청년부 자매들의 도움을 받은 집사님의 미용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숨겨 놓은 솜씨를 발휘하신 이승렬 목사님까지 동참하셔서 미용과(?)가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가 되었고 3일 동안 무려 380명에게 단정한 모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첫째 날 진료를 마감하니 총 내진 환자수가 387명, 준비 관계로 첫째 날은 2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 드리면서 황혼이 물들어 오는 평원을 가로질러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전날의 소문 때문인지 100여명의 환자가 이른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일초의 여유도 같지 않고 곧 바로 진료를 시작하시는 주님의교회 의료진들을 보면서 그 분들에게 봉사를 위한 열정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를 감당하시면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첫째 날에 개설된 어린이 선교학교도 둘째 날이 되자 본 궤도

에 올라 여타 진료 봉사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단정치 못한 모습이지만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순수한 어린이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이들보다 풍족하게 가졌지만 기쁨을 잃고 마음은 자꾸 가난해져 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가슴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또 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다시는 킬링필드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였습니다. 둘째 날을 마감하며 아쉽지만 일부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진료를 마치고 나니 총 내진 환자가 520명이었습니다. 벽찬 진료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사고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하루를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셋째 날

비록 시술 환자는 적었지만 급변 의료 선교 봉사의 백미는 외과 수술이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술장비 이동이 여의치 않아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부족한 장비가 현지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수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간이 수술대에서 수술을 집도하신 두 분 집사님들의 숨씨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타고난 외과 때문에 평생을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새 삶을 심어준 것은 몸의 이상뿐 아니라 더 깊이 숨어 있던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청이인 두 남매 모두를 수술시키고 다음날 감사의 표시로 우리 돈 500원 정도의 현지 화폐를 고이 접어 가져와 가만히 내밀며 허리 숙여 인사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을 받지 않지만 이들의 회복된 마음은 고이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 길어지기 시작하자 마지막 날 이어서인각 진료실이 마감 준비로 어수선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나눠주는 약국은 한창 성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뒤늦게 바빠지는 약국에서 타 놓은 커피가 식어 가는지

도 모른 채 약사 집사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약국의 마지막 처방을 끝내고 대충 정리를 하고 나니 주변은 완전히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다시 밤이 오고 우리는 돌아가지만 이 방은 계속 환할 겁니다. 집사님들 모두가 어둠을 밝힌 등불이었으니까요.' 라는 마음 속 격려를 보내면서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을 접었습니다. 마지막 날 진료한 환자는 590명,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1,497명, 사흘 동안 예상보다 약 50%나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된 기록을 남기고 의료 봉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킬링필드로 너무나 잘 알려진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이념 분쟁이 종식된 것은 불과 17, 8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고통 받았던 이 땅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후유증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상처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무기력하게 보이거나 체념한 듯이 보이는 것도 이 땅이 지닌 상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찾아 올 것을 기약하고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무사히 끝낸 우리는 비록 몸은 지쳐 피곤하였지만 대과 없는 성과에 스스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도착할 때보다도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할 때의 소나기와는 반대로 시엠립 공항을 찬란하게 내리 비추는 아침 햇살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전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들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쉬지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언젠가 그들의 황무한 땅에 축축한 단비가 내리고 새 생명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듯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광 고

상담부에서는 전화 및 방문 신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오전 9:00~12:00, 오후 1:00~5:00

문의: 416-5183

특집 : 우리는 중등부

교향악단

고승계 전도사(중등부 담당)



21세기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여성의 실제적인 지위 향상과 평신도 지도자의 등장 등으로 표현되는 리더십의 분산이다. 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변화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비록 이런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변화를 격려한다.

연주회에 비유해 보자. 피아노 독주회는 피아니스트의 손 놀림과 몸 동작으로 전율을 일으키게 하며 청중을 사로 잡지만 교향악단의 웅장함과 다양한 소리의 하모니는 결코 흉내낼 수 없다. 비록 두 형식의 음악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공명하며 청중에게 서로 다른 음악의 세계를 선보이듯이,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교회는 교향악단과 같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주님의교회 중등부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기대하고 또한 서로가 교향악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 한다. 지금은 중등부가 각각 맡은 악기를 연습중이라 미흡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 웅장한 연주를 할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예수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2학년은 공관복음, 3학년은 복음을 위한 창세기란 주제로 주일 낮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20주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중등부 주보와 홈페이지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제작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주 중등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중등부에 대한 바람을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손천숙 지도 권사님이나, 총무에게 알려 주시면 교회를 아이들의 영혼의 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교사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김준혁(중등부 학생회장)



중등부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가지 생각하여 보니 감사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감사하오며

좋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키만 자라게 하지 마시고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키도

선한 마음의 키도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기쁨과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한 2002년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중등부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2년, 중등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1

신영숙 집사(중등부 총무, 은유 8구역)



흔히들 요즘 중학생들을 빗대어 럭비공 같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중등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남병원을 찾아 환우들의 예배를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좀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 예배 후 회망자에 한하여 학년별 소그룹으로 특별 성경공부반을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은 기독교 공부하기,

그날 이후

이영미 B 집사(중등부 교사, 화평 8구역)



하늘에서 온 편지 하나

기대를 건다는 것은 차라리 외로움과 허전함이었지만...

열린 창으로 살면서 보이는 무지개를 따라갔습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 두울.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과 함께 세상의 소리는 멈추고

어느새 내 옷은 무지개 빛으로 변하여 주머니 주머니마다

은혜·기쁨·감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마음에도 커다란 존재가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 세엿

높은 곳에 올라가 막 씻어 놓은 깨끗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 보라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같이 살아가는 것뿐...

아름다운 무지개 세계를 그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바람...

무지개 마음...

무지개 물빛...

이제는 그림을 답장을 드려야겠어요...

커다란 님에게...



특별기고

느티나무

강석영 목사(충성교구 담당)



13년 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그동안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가족과 함께 시골로 들어 가게 되었다.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신안리. 직장에 다닐 때 노후를 대비해서 별 생각없이 마련해 두었던 작은 공간

이 신학교 3년간의 안식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러나 늘 동경하던 전원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 온 데 대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다. 풋풋한 흙 냄새와 순박한 농부들의 삶의 모습들, 개와 고양이와 함께 한 아담한 텃밭에서의 어슬픈 농사 체험 또한 우리를 황홀하게 했다.

편리하던 서울 생활이 그리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은 완전히 기우였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큰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8km 시골길을 신나게 달려 읍내 중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아이는 전교생 90명인 이웃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수월하게 시골 아이가 되어 갔다. 집사람은 작은 채마밭을 가꾸며 채소와 옥수수·참외·가지·토마토·수박·호박·고구마·땅콩 등등 하나님이 주신 흙의 법칙을 조금씩 마스터해 갔다. 서울에선 느끼지 못하던 계절의 정감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가족들이 촌사람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광나루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금요일 오후면 돌아왔다가 화요일 새벽에는 귀경하는 생활을 반복해 갔다.

금요일 오후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1시간 반 남짓 시간은 내겐 기대와 설렘과 희망 그 자체였다. 가족들과의 일주일만의 만남, 몇 평 되진 않지만 주말마다 흘린 땀의 결실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내게 신학 공부만이 아니라 자연 공부와 사람 공부도 시켜 주셨다. 나는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갔다.

30여 호 정도 되는 동네 어귀 큰 저수지로 올라가는 약간 한적한 곳에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300년은 넘었다고 한다. 여름철이면 무성한 가지를 내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좋은 쉼터와 친교의 장소가 되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지난 세월의 마을 역사를 그 나무와 함께 얘기하곤 했다. 한일합방, 고종황제의 장례식, 어려웠던 일제시대와 해방, 6.25 전쟁의 와중에서 자행된 좌우익의 끔찍한 만행들, 경제개발과 새마을 운동 등... 이 모든 기억들을 끌어 안은 채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고, 농부들은 나무를 바라보며 안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었다. 그 느티나무는 삶의 시름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오랜 친구였다.

내게도 느티나무는 소중한 친구요, 묵상의 스승이 되었다. 신학을 시작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회의와 두려움, 상실감을 안고서 혼자 나무를 찾아가면 나무는 언제나 나의 빈자리를 채워 주었다. 그리고 짧은 방향을 끝내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 주었다. 신대원 3년 동안 어떤 교수님보다도 훌륭한 상담자였고,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여름 한낮이면 나무 그늘 밑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미래를 생각했고,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는 나무와 함께 고통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신대원을 마치고 드디어 시골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느티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친구야, 네가 가르쳐 준 지혜와 위로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게"

주님의교회에서의 사역도 청년부 전도사 3년과 교구목사 5년을 마치고, 어느새 도합 9년차로 접어든다. 길면서도 짧게 느껴지는 세월이다. 정든 성도님들, 낯익은 교회의 구석구석들... 94년 말, 이 재철 목사님이 처음 불러 주셨을 때, 나는 주님의교회에서 한 그루 느티나무가 되리라 다짐했었다. 묵묵히, 겸손히, 그러나 그 자리에 변함 없이 서 있는 나무처럼...

돌이켜 보면 그림고 보람있는 때도 많았고 아쉬운 기억도 없지 않다. 이제 남은 몇 달간은 지나간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이 되기로 다짐해 본다. 다만 한 가지, 지금도 늘 물어보는 것이 있다. '나는 느티나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기 고

주차시에도 평화의 질서를

신광이 집사(차량부, 사랑 10구역)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주일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예배드리며 친교와 봉사가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주차 문제로 이따금씩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봉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함이 아닌가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학교 운동장이라 주차가 편리하리라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러 오지만 일부 성도들이 차량 경주나 하는 것처럼 과속을 하고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질주한다면 주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다른 성도들의 안전에 위협을 줍니다. 근래 우리교회는 새신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됩니다. 차량이 사람사이를 지날때는 반드시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주차 봉사원의 안내를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① 자가용 성도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실천

최근 교회 주차장은 외부인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그만큼 성도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차를 봉사자들이 통제하고자 전 차량에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주차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능하면 자가용을 갖고 있는 성도님은 1,2부 예배를 이용하시고, 3부 예배는 노약자, 장애우 형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물품운반이나 악기를 휴대하신 봉사자들을 위해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 1,2부 예배는 맑은 공기속에 좋은 좌석에서 첫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자가용 이용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3부 예배에 성도님들이 집중

되어 진다면 성전과 주차장에 제한을 받아 늦은 성도님은 노변에 주차를 하시고 뒷좌석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자가용 이용시 주차 매너

한 줄로 서서 교회에 진입합니다. 진입 우선은 노약자나 사람 먼저 통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 차량이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서로 양보의 미덕을 베풀시다. 교회 입구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차량 속도를 시속 10km이하로 줄여서 차량 안내 봉사의 수신호를 받아 맑고 밝은 마음으로 상호 미소로 인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진입 절차는 정문-예배당 주변-교실주변-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되 주차시는 전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주차해야 합니다. 예배당 주위와 교실 및 체육관 주변은 대부분 단일 통로가 설정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안내에 따라 통로 주차를 안내할 때는 타이어를 정렬하고 기어를 중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귀가시는 예배당 및 교실 주변 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다음에 운동장에 주차한 차가 나가는 순서로 정문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량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차이는 몇분 이내가 됩니다.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며, 정문에서는 편의상 두 줄로 줄을 서서 좌우 회전하여 나가면 쉽게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우천시 알아야 할 사항

주님의교회에서 주차관리중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는 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주차 수용능력의 1/3로 감소됩니다. 현재 1부 예배차량까지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2, 3부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주차나 뚝방길 주변에 주차할 수 있으나 주차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④ 주차시 안전관리 요령

차량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어린이와 노약자를 잔류시켜 놓고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점은 겨울에는 동사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산소 결핍 및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며, 차를 부수고 금품을 훔쳐가는 도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행간에도 가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차 상식과 협조와 당부의 글을 언급하면서 차량 문제로 권면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 인지라 마음 한 구석은 성도님께 은혜와 기쁨의 글이 못되고 부담이 되는 글이 될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질서가 바로 설 때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광고드릴 것은 2월 말 부터 우리 교회의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성도들께서는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식’이란 두 글자는

김영미 B 집사(온유 17구역)



자식이란 두 글자는 노래가사처럼 씩씩하고 달콤하고 괴롭고 행복하다. 날마다 밀려있는 숙제같으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영원한 짝사랑같은 그 이름. 허약한 내게도 모성의 본능을 부여하여 강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주었던 그 위대한 이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마음 고생을 하다가 수 년 동안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며 뒤늦게 얻은 아들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었다. 주변에서 아이를 접할 기회가 없다가 처음으로 집안에서 외손주의 재롱을 보게 된 내 아버지는 아이의 모든 행동이 신기한 나머지 ‘애가 천재가 분명하니 어디가서 알아보라’고 성화를 하시곤 했다.

누구나처럼, 아이의 영롱한 눈빛에 기대가 컸기에 잘 키워 집안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욕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내 아이만 볼 때는 아이가 천재 같지만 여겨지더니,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에 이사간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자 다르게 보였다.

그토록 똑똑해 보이던 아이가 또래집단에 섞여 놓으니 웬지 어수룩해 보이고, 아이의 부족한 점만 눈에 띄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곤 어수룩한 이 엄마도 조기 교육의 열풍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통 엄마들처럼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13층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바둑을 배우게 했더니 끈기와 지구력, 사고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자랑하기에 바둑을 등록시켰다. 앞 집 아이는 서예를 시켰는데 그 급하고 침착하지 못했던 행동이 많이 고쳐지고 한문 실력도 늘었다기에 아들을 설득시켜 서예를 보냈다. 너도 나도 시키는 운동의 붐을 타고 남자니까, 건강해야 하니까, 멋있어야 하니까 이래저래 수영·테니스·축구·농구·스쿼시·스키 무엇이든 연결이 되는 대로 열심히 투자를 했다. 아이의 정서와 교양을 위해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케도에 올려보려 애를 썼고, 미술도 한문도 틈을 짜서 열심히 가르쳤다. 때로는 아이를 설득하고, 아이가 싫어하면 야단도 치면서, 또 조건도 걸어가면서 끌어 나갔다.

아들은 그런대로 잘 따라와 주었고 난 내 소유물같은 아들을 내 방식대로 사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했다. 아이는 중2 말부터 서서히 반항의 눈빛을 띄기 시작했다. 사춘기의 이름으로 정신없이 내게 도전장을 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대답은 늘 “싫어!”였다.

전자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며 밴드부를 결성했다. 아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려는 학교의 배려로 학교 밴드부의 리더가 되었고 아이는 그 가을부터 정신없이 기타에 빠져들고 공연이나 동아리 발표회에서느라 공부도 뒷전이고 귀가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누구보다 튀고 싶다며 도무지 보아줄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파격적이 되어갔다.

덩달아 내 잣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다. 키도 크고 조숙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무엇이든 빨리 시작했고 빨리 경험했기에 나는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담배도 술도 머리염색도, 반항도 무면허 오토바이도...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 설득도 해보고 야단도 치며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범생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내게 마음을 닫았고 거칠어졌으며 밖으로 돌아왔다.

기도를 하면서도 도무지 어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서서히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 나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던 중, 5월 달 내내 주어진 교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족간의 갈등을 극복할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나눔의 시간 속에서 나는 참으로 무지한 엄마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를 힘들게 해서 미웠던 아들이었는데, 수많은 세월동안 아이를 힘들게 했던 독선적인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불완전한 내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아이의 자아에 상처를 냈는지...

교육은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 이해와 용서는 엄마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던가. 실수도 부족함도 방황도 다 받아주는 그런 너그러운 엄마가 되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대리로서 난 아이에게 어떤 상을 심어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야단치시고 벌주셨다면 지금의 내가 남아있겠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 따스한 성품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해 선을 이뤄가실 줄로 믿게 되었다. 아직 아이가 미숙해서 잘못 결정하는 많은 부분들, 서툴러서 겪는 많은 시행 착오들도 다 아이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하려 했던 많은 부분들...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인생을 앞서 살고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대신 결정해 주고 따라와 주기만을 바랬던 마음, 내 나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평가했던 그 마음을 이제 놓는다. 스스로 겪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달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로 신뢰로 격려로 그렇게 있어주는 엄마이기를 희망한다.

예수님께서 끝없는 이해와 용서로 오래 참으시면서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내 서툴고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자 한다.

수필

꿈 속에서 만난 예수님

윤정서(초등부 4학년)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주님의교회를 다녔다. 8년째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다.

난 내가 꾸는 꿈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꿈의 시작은 이러하다.

나는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는 이상한 친구였다.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모든 물건을 깨뜨리고 부숴버렸다. 난 그것이 두려워 밖에 나가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 위 안전 바에 올라 앉아 있다가 그만 중심을 못 잡아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외국 사람의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외국 사람의 얼굴이지만 아주 평온해 보였다. 알고 보니 그는 예수님이셨다. 이건 진짜로 내가 꾸는 꿈의 이야기이다. 내가 죽은 나를 볼 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그 곳에 올라가니 웃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난 예수님을 따라 또 가보았다. 그 곳에는 아주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계셨다. 그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너무 빛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난 하늘 나라에서 내 또래 아이와 어떤 시합을 해서 이겼다. 그러자 예수님은 연두빛 메달을 내 목에 걸어 주셨다. 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난 땅을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죽은 나를 깨우는 이웃들이 있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너는 너무 일찍 이곳에 왔어. 너에게 하나의 생명을 또 줄

테니 열심히 살아라" 하셨다. 그러자 내 몸이 아래로 내려 가면서 죽은 내 몸에 누웠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우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깨뜨리고 부숴버린 것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난 그 장면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평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궁금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꿈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난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란 것을 알았다.

꿈을 꾸고 난 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힘이 되고 웃음이 절로 나온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코스타리카 선교지에서

금상호 목사

지면으로나마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와 안부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2개월의 안식달을 보내고, 다시 코스타리카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은 이민 교회라 안식달을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탈진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안식달을 가졌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위기가 자주 반복되고, 탈진의 요소들도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식달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휴식을 가지고, 특히 3년 만에 한국을 다녀온 것이 여러면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작년 9월 미국의 테러 사건 후 미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곳도 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 관광과 커피·바나나인데 사고 후 관광객의 급감과 커피와 바나나 값의 하락으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강도들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둑으로 인하여 연말에는 한인들 여러 가정의 크게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저희 교우 두 가정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총 강도와 도둑들로 인하여 조심하고, 곤혹스러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 안에 관리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도둑질을 안하고, 착실한 관리인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는 목사님 아들 가족을 관리인으로 고용했는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비를 구했는데,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자기 부인과 심하게 싸우고 허대로 심한 상처를 내고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한인들이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겪어야 하는 애로점들입니다.

1월 초에는 교회에서 자면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교재와 교사 등의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 주변 현지인 아이들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20여 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콜롬비아 목사님이 협조하여 재미있게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공부보다 교회에서 축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 일이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구에 광적인 이 나라도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국 교회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센터를 현지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70명의 중독자들이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저회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디오 사역을 해오고 있는 현지인 평신도와 협력하며, 인디오들을 위한 종합선교센터(보건 진료소, 숙소, 공예품 만드는 곳 등)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작은 우리 교회가 더 안정이 되고, 든든히 서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월 5일이 창립 7주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을 모시고 기념집회를 계획중이며, 17일에는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위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현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모저모로 도움을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모두들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청하는 도움이 주로 물질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힘이 되어 주기가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교제하면서 요즘 깊이 생각되어지는 단어는 '역선교(reverse mission)'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선교지인 이곳에서 작은 이민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오래 견디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열심이 잦은 탈진을 불러오기도 하고,

정보의 느낌이 게으름을 불러 오기도 하고, 도전이 부족해서 영적인 빈곤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는 선교지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투의 전방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 나시면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7년 살아보니 정말 외롭고, 힘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럼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풍성하시길 바라며... 인사와 안부를 마감합니다.

교 회 소 식

1. 지금은 사순절 기간(2월 13일 ~ 3월 30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2월 20일(수)부터 예배 및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차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10월 말 완공 예정) 동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간성경공부가 다음과 같이 3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안내대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상훈 목사	화요일	10:30 ~ 12:00
예베소서	홍경환 목사	화요일	10:30 ~ 12:00
새교우반	이승렬 목사	화요일	20:00 ~ 21:30
성경핵심연구	강석영 목사	목요일	10:30 ~ 12:00
귀납적성격워킹반	김원재 목사	목요일	10:30 ~ 12:00

4.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알 립 니 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4월 7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원중 안수집사).

■ 질 문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사람들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신을 믿는 방식도 다른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분은 사람들마다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모두를 너그럽게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 가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 답 변

질문자께서 전제하신 것처럼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다른 이름으로 신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해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결합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지할 수 있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자녀가 부인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우기고 가출하면 당분간 부모의 얼굴을 안보고 지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자관계(천륜이라고도 하죠)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식이 싫다고 다른 부모를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진정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유일지는 몰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친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철저히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짐으로써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여	호	와	나	의		3	아	4	골
리				스					리
5	고	빌	로		기				앗
				6	야	고	7	보	
8	미	벤	에	셀				아	
	바			라			10	스	11
12	브	노	13	엔					나
라			리		14	브	엔	세	바

■ 가로열쇠

1. 여호와와 나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쌓은 단의 이름 (출17:15)
3.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친 골짜기 (수7:24~26)
5.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던 이탈리아의 백부장 (행10:1)
6.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막1:19)
8.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 (삼상 7:12, 13)
10.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 구스의 아들 (창 10:7)
12.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곳 (창 32:24~31)
14.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창 26:23, 24)

■ 세로열쇠

1.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 (눅 19:1)
2. 요시아의 셋째 아들, 본명은 맛다니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 (왕하 24:17, 18)
4. 다윗의 돌팔매로 죽은 블레셋의 장수 (삼상 17:23~50)
7. 다윗의 증조부 (룻 4:21, 대상 2:12)
8. 바울의 전도로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 된 사람 (골 1:7, 4:12)
9. 오난이 낳은 아들 (창 38:2~5)
11.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도에게 바울의 회개를 소개함 (행 9:26~27)
13. 나의 하나님. 가상칠언 중에 포함된 말 (마 27:46)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4. 가버나움 5. 가브리엘 7. 아가 8. 빌라도 9. 오병이어 11. 장사

■ 세로

1. 하나님의 나라 2. 스가랴 3. 마리아 6. 엘가나 10. 어린아이 12. 사랑 14. 마음

■ 정답 보내주신 분

조현섭, 신정웅, 이행미, 정도일 님께서는 교회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4월 7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요.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문의: 교회 사무실 416-5181).

부활절 계란의 기원과 만들기

김갑수 권사(온유 18구역)



세계 각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예쁘게 색칠한 계란을 주고 받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그 정확한 유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란이 병아리로 바뀌고 이것이 성장해 닭이 되고 다시 계란을 낳는 일련의 끊임없는 생명과정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비유할 수 있으며 또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단단한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병아리에 비유할 수 있기에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속담 “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에 영향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계란장수였다는 초대교회의 전설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쁜 계란염색방법을 소개하오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계란을 사다가 터지지 않게 잘 삶아서 식용색소를 풀고 물감을 들여보았다. 분홍색·연두색·노랑색·하늘색으로 물들여 유리그릇에 담으니 너무 예쁘다. 부활절 계란으로도 좋고 친구나 친지를 방문할 때 작은 바구니에 계란을 담거나 셀로판지에 잘 싼 후 리본으로 묶어서 선물하면 어떨까? 받는 이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재 료

흰색계란, 식용색소, 식초, 직경 0.8cm 동그라미 스티커

만드는 법

1. 계란을 터지지 않게 잘 삶아서 찬물에 담궈 식히고 물기를 제거한다.
2. 삶은 계란 한 개마다 동그라미 스티커 8-10개 정도를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인다.
3. 여러개의 볼을 놓고 각각 식초 1T.S(테이블 스푼)·식용색소 5-6방울(두가지 색을 섞어도 좋다)을 떨어 뜨린다.
4. 여기에 뜨거운 물 2컵씩 부어 젓가락으로 잘 젓는다.
5. 이를 10분정도 담구었다 바구니에 건져, 종이 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30분후에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면 물방울 무늬의 예쁜 계란이 된다.

시

황혼과 어둠 -묵시록의 길-

정해춘 집사(충성 5구역)



머리 속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말쑤은
새까만 새폐 되어
서녘 하늘에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것은
흐르는 강물 속에 찢물 되어
심장의 아픔으로 다가선다.

세월은 그렇게 가고
내일 하루는 또 그렇게 오는 것.

굵직한 굉음(轟音)으로 파편을 날리고
아주 자지러지게 놀라며 까물치는
어릴 적의 의식 안으로, 물 속에 빠져들 듯
자꾸만 궁창(穹蒼) 속으로 빠져든다.

또, 붉은 구름 기둥에 바람이 불어
언덕빼기 밑 옥청(郁靑)하게 자란
줄풀과 갈대가 기병대의 움직임으로 겹을 주고
새들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빨간 찢빛 수채화 물감을 토해낸다.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사랑하시오.
모두 하루의 인사를 몸짓으로 신호하며
종내 허무(虛無)로 끝을 맺는다.

하루는 그렇게 그냥
길 없는 새까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묵시록의 길을 낸다.
살다보면 수많은 날 가운데 하루는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 하면서
마침 유성(流星)이 십자(十字)의 하늘길을 지나간다.